

찬 송 496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창조4 /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 요4:10-11; 롬8:19-21; 마6:26 >

✠ 교회 소식 ✠

㉑ 예배 : “뿌린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랑의 씨앗을 심읍시다.

창조질서회복 설교시리즈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청지기”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7월 5일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렘 17:7-8	계 22:1-2	막 8:22-26
7월 12일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암 5:24	계 22:17	요 4:13-14
7월 19일	흙,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창 2:7	갈 6:7-8	막 4:3-8
7월 26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요 4:10-11	롬 8:19-21	마 6:26
8월 2일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겔 37:9-10	엡 2:2	요 3:8

㉒ 성령강림 후 여덟째주일 성찬식 : 19일(오늘) 1·2부 예배시

㉓ 상반기 구역연합예배 : 19일(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 말씀 : 우리 집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조건희 목사, 예능교회 원로)
- 찬교 : 다과와 나눔

㉔ 정기당회 : 26일(주) 오후 2시 30분, 회의실

㉕ 모임
- 한빛 여전도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한길 여전도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영아유치부실
- 한누리 남선교회 월례회 : 19일(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23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㉖ 긴급구호현금 :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많은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
습니다. 총회와 함께 긴급구호에 동참합니다.('구호현금'이라 기재)

㉗ Grant Smith, 노선경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 25일(토) 오후 5시, 본당

㉘ 식당봉사
- 19일(주) : 방 민 정정아 / 방승주 이강민
- 26일(주) : 최호정 고명수 / 이호진 정찬욱

㉙ 교우소식
- 장례 : 故유승재 장로(뉴질랜드), 15일(수) 별세(유족위로예배, 오늘 오후 3시 기도실)

㉚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영아유치부	7월 25~26일(토,주일)	안동어린이집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아동부	8월 1~2일(토,주일)	아동부실 & 교회마당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7월 31일~8월 2일(금~주일)	가평 이오스펜션	지피지기: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다
청년부	8월 7~9일(금~주일)	황성 현대수리조트엔제너두	다시 새롭게!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절 후 여덟째주일

제771호

2026. 7. 19.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흙,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창세기 2:7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생명의 재료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이름은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
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흙(먼지)에 불과함을 아는 것이 신앙적
경손의 출발입니다. 흙의 가장 위대한 특성은 불품없는 씨앗이라도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생명으로 길러내는 포용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좋은 땅'
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없는 창조의 법칙 안에
서 육체를 위해 탐욕의 쓰레기를 심을 것인지, 성령을 위해 생명의 실천을 심
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이웃과 세상을 품어내는
부드러운 옥토의 성도들이 됩시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내 마음 밭의 상태] 최근 내 마음의 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 어떤
상태(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나 타인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는 굳은살
이나 염려는 무엇입니까?
2. [심고 거두는 법칙]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번 주부터 심을 수 있는 작은
'성령의 씨앗(환경 보호 실천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